

이승엽, 2017 KBO 신인선수 대상 특강

등록 2017.01.10 09:41:18



NEWSIS

KBO, 2017년 신인 오리엔테이션 실시

【서울=뉴스시스】황보현 기자 =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오는 13일 오전 11시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올해 프로 무대에 첫 발을 내딛는 신인선수(육성선수 포함) 약 160명을 대상으로 2017 KBO 신인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교육은 선수들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생생한 현장 분위기를 전달하기 위해 이승엽(삼성 라이온즈)이 직접 강연자로 나선다.

이승엽은 이날 신인 선수들에게 선수로서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 체력 관리 방법 등 새내기들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내용과 귀감이 될 만한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클린베이스볼 강화를 위한 부정방지 교육에는 전 LG 트윈스 박현준과 법무부 양중진 부장검사의 강의가 마련돼 있다.

지난 2011년 경기조작 가담으로 KBO 리그에서 영구 실격된 박현준은 후배들이 자신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경험을 바탕으로 프로 선수의 도덕성과 부정방지의 중요성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워줄 예정이다.

이어 양중진 부장검사가 부정방지에 대한 법적 개념과 도박, 승부조작 등에 대한 법적 처벌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주는 등 과거 신인 오리엔테이션에 비해 더욱 심도 있는 부정방지 교육이 실시할 예정이다.

또 스피치맵 대표 윤희정 아나운서가 지난해에 이어 선수들의 '커뮤니케이션 및 미디어 대응법'에 대해 강의하며, 이종열

KBO 육성위원은 '프로선수가 가져야 할 매너'를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의 이규환 부장이 전하는 건강한 선수 생활을 위한 반도핑 교육을 끝으로 2017 KBO 신인 오리엔테이션 일정을 마무리한다.

hbh@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